

앨런 섬 보호에 나선 티베트 불교계

스코틀랜드 앨런 섬에 화력발전소 계획...지역 불교계 등 반발 앨런 섬, 1990년대 이후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 거점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의 안식처가 되어 온 섬이 개발 소용돌이의 중심부에 놓이게 됐다. '스코틀랜드 썬 데이(Scotland on Sunday)' 지는 7월 29일자 보도에서, "수세기 스코틀랜드 산업사 저편에 머물며 가톨릭과 불교의 안식처 수행처가 되어 온 앨런(Arran) 섬에 자원개발 시설이 들어설 방침이 세워져, 1990년대 섬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티베트 불교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앨런 섬은 스코틀랜드 남서부 클라이드(Clyde)만 하구에 위치한 '성스러운 섬(The Holy Isle)'으로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수력이 자생해 스코틀랜드 안팎에서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종교사적 의미도 더해진다. 13세기 건축된 교회가 현존하는 가하면,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성 모라이스(St. Molaise)의 기도처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까지 스코틀랜드 가톨릭계의 피정처로 각광을 받았다.

현재 앨런 섬은 스코틀랜드 티베트 불교계의 거점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는 앨런 섬의 소유지였던 부동산 개발 케이 모리스(Kay Morris)가 1992년 샴에 링(Samy Ling) 사원을 비롯한 티베트 불교계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후 10km 남짓한 둘레의 앨런 섬은 라

마 예쉬 린포체(Lama Yeshe Rinpoche)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계의 수행처로 탈바꿈하게 됐고, 섬을 비롯해 클라이드만 지역 주민들의 발심(發心)에 힘입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불교계 성지, '성스러운 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앨런 섬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가 섬을 중심으로 산업화 플랜트(plant) 계획을 발표, 지역 불교계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가 발표한 산업화 플랜트 계획에 따르면, 북부에너지개발업체가 클라이드만에 화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앨런 섬의 람래쉬(Lamlash) 지역과 화이트링(Whiting)해안 사이에 분포한 수력에서 연간 4만여 그루의 나무를 벌목, 발전소를 운영한다.

이 계획을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예쉬 스님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계였다.

예쉬 스님은 "섬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선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해 '고요'와 '평온'이라는 앨런 섬의 분위기가 망쳐질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처의 역할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

여기에 클라이드만 지역 주민들이 가세, '앨런 섬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티베트 불교계와 보조를 맞췄다.

반면 지역 자치단체 측은 "산업화 시설이 들어서면 클라이드만 일대에서 14%의



선상에서 바라본 '성스러운 섬(The Holy Isle)', 앨런 섬의 전경. 이 섬은 스코틀랜드 남서부 클라이드(Clyde)만 하구에 위치해 있다.

고용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들의 소득도 향상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한편 "소음과 분진은 친환경 공법과 공정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여기에 시설 가동 시간도 단축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화 플랜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틱켈(Tickell) 개발위원장은 "이번 개발 계획은 티베트 불교계나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섬과 그 주변의 자원을 한정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게 관련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따름이다.

이에 따라 티베트 불교계는 '화력발전소 신설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 자료

를 모아 오는 8월 중 예고된 공청회에 제출, 화력발전소 백지화에 힘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산업화 플랜트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만여 명의 인근 지역 주민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예쉬 스님은 "이곳이 북유럽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라는 점을 간과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동시대 부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서명 날인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스코틀랜드 각계각층에 편지를 보내 앨런 섬의 자연 및 수행 환경을 훼손하는 자치단체의 산업화 플랜트 계획을 저지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밀교와 도상학의 전문가

세계의 불교학자(27)

구드룬 뷔네만 美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



구드룬 뷔네만(Gudrun Buhmann) 美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는 불교와 힌두교 및 밀교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다. 그는 또한 인도학, 범어 언어학 및 문학, 그리고 밀교 도상학(圖像學)과 의식의 세계적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 중부 고스라르시(市)에서 출생한 뷔네만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의 올프스대를 졸업하고 1980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대에서 고전 인도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인도에서 10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게 되며 인도 종교, 특히 밀교의 의식과 도상학에 관심을 갖는다.

"밀교의 전적을 연구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그러한 연구는 내게 환상적인 학문적 주제였다"고 말하는 뷔네만 교수는 1980-1982년 인도 뿌나대의 고급 범어학 연구소에서 포스트-닥터(Post-Doctor) 연구원으로, 1982-1983년 함부르크대의 인도학과에서 연구 조교로, 1983-1989년 인도 뿌나의 만다라르 동양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1987년부터 논문과 저서를 본격적으로 발표할 뷔네만 교수는 브하드라 만다라가 의식(儀式: ritual)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 가네샤 신이 밀교에서 어떻게 숭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1989-1991년까지 일본 나고야대 인도철학과의 연구원으로, 1991-1992년에는 일본 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있었다.

뷔네만 교수는 1992년, 영국 옥스퍼드의 올프스대의 스펙팅 방문 펠로우로 잠깐 재직 후 미국 위스콘신대의 매디슨 캠퍼스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범어와 인도불교의 전문 교수로 현재까지 위스콘신대의 아시아언어문화학과와 불교학 프로그램의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범어(梵語)를 주로 가르치는 뷔네만 교수는 범어 문헌을 범어 문학과 범어 언어학의 토대 위에서 접근한다.

범어 문헌을 번역할 때 의역보다 직역을 선호하는 뷔네만 교수는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해 10여 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과 서평을 출판했다.

독신으로 살며 연구 활동 이외에 아무런 취미가 없을 정도로 연구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뷔네만 교수는 "불교학 연구에서 종종 영성적인 관념을 토대로 이론을 세우기도 한다. 불교학의 중요한 전적의 교정본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불교와 힌두교의 밀교 의식과 도상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준 야수다 스님, 600km 대장정 '반핵 도보 캠페인'

30여 년간 '핵 에너지와 무기'의 위험성 알리는 데 매진

미국에서 일본계 비구니 준 야수다(Jun Yasuda) 스님이 전개하고 있는 600km 대장정의 '반핵 도보 캠페인'이 화제다.

'노섬벌랜드 뉴스(Northumberland News)'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 코어스카운티에 있는 소도시, 노섬벌랜드의 준 야수다 스님이 7월 12일 피터스버그(Petersburgh)에서 출발, 온타리오(Ontario) 호수 인근 버펄로(Buffalo)까지 600km의 반핵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재앙과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 용해 참변을 지켜보며, 핵의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준 야수다 스님은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

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당면한 문제"라며 "다음 세대에 청정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이번 도보 캠페인을 지켜보며 핵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스님 도보 캠페인 여정에서 우라늄 생산·공급 업체인 카메코(Cameco Fuel Manufacturing)가 있는 포트 호프(Port Hope), 달링턴 핵시설(Darlington Nuclear Power Plant), 픽컬링 핵시설(Pickering Nuclear Power Plant) 등지를 방문, 지역 주민들과 동참하는 거리 캠페인도 전개한다.

스님과 함께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로렌 칼본(Lauren Caribon)과 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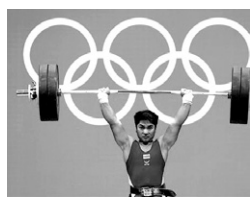
준 야수다(Jun Yasuda) 스님과 로렌 칼본(Lauren Caribon), 알렉스 키코로(Alex Ciccolo)가 피터스버그(Petersburgh)에서 출발해 온타리오(Ontario) 호수를 가로질러 버펄로(Buffalo)에 이르는 600km 대장정의 '반핵 도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핵 에너지와 무기의 위험을 알리고 있다.

키코로(Alex Ciccolo)는 "우리가 온타리오 호수 주변을 반핵 도보 캠페인의 여정으로 삼은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피폭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고 "30여 년간 핵 에너지와 무기 종식에 앞장 서온 야수다 스님의 서원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메달리스트 댄서 출가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약속에 따라 출가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런던올림픽 58kg급 여자 역도선수로 출전, 2위로 입상한 핼시리 시리케위의(사진) 어머니 아몰네트 시리케위.

태국 매체에 따르면, 아몰네트 시리케위는 9일간 사원에서 철야기도를 올리며 "만약 자신의 딸이 메달을 받으면 출가하겠다"는 맹세를 했다.

아몰네트 시리케위는 "부처님께서 가난한 불자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며 "이제 맹세를 실천해 부처님을 가까이 곳에서 모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금오국제불교선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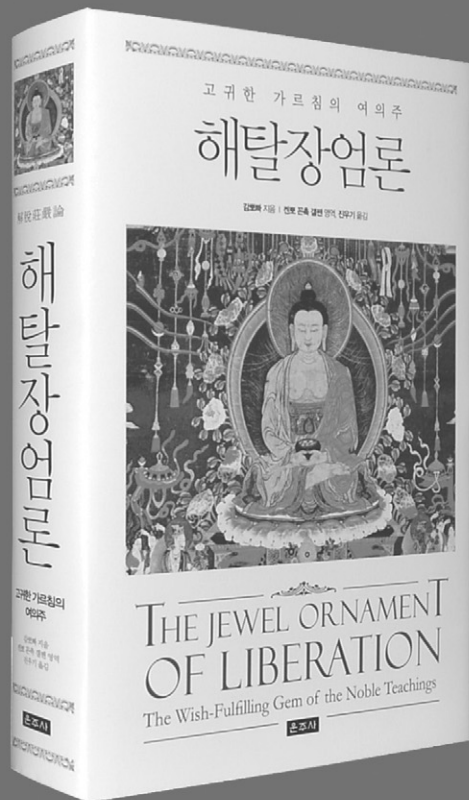
금오 스님(1896~1968)을 기리기 위한 금오국제불교선원이 미국 LA에 개원했다.



2004년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후 8년여의 불사 끝에 LA 코리아타운에 문을 연 것.

금오국제불교선원은 7월 8일 개원식과 헌관식을 봉행했다. 건평 1만4000㎡(약 4235평 규모), 4층 규모로 건립된 금오국제불교선원에서는 설조 스님 법어, 성타 스님과 현조 스님의 축사, 종상 스님 발원문 순으로 첫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는 금오국제불교선원장 현철 스님, 법주사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개원을 축하했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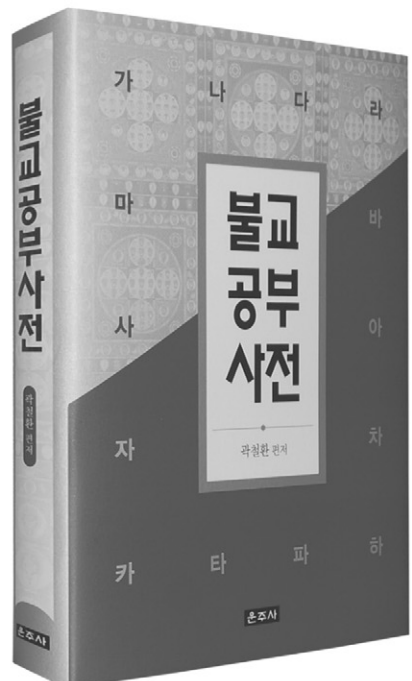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서!

티베트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뵘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미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뵘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